

“개린이날 축하해~” 가정의 달 반려용품 판매 쑥쑥

〈개+어린이날〉

간식·케이크·캣타워 등 선물하며
반려동물과 기념일 보내는 펫팸족↑
유통가 관련제품 잇따라 출시 ‘눈길’



캣타워.

/몬도미오



▶웰츠의 ‘웰츠바삭’

영양과 안전성이 높은 특별한 건강 간식을 찾고 있다면 원재료 그대로 담은 동결건조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리온 수의사가 만든 웰메이드 펫푸드 ‘웰츠’에서 새롭게 선보인 웰츠바삭 2종은 반려견, 반려묘의 영양 충전을 위한 파우치 형태의 동결건조 건강 간식이다. 영하 80도에서 원재료가 가장 신선할 때 열을 가하지 않고 수분을 급속 동결시켜 건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웰츠바삭 2종은 각각 100% 국내 닭가슴살, 100% 러시아산 명태만을 함유해 바삭한 식감과 영양소를 그대로 담았다. 특히 탈색제, 방부제, 색소, 첨가제 등의 식품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염분 함량을 1% 이하로 낮췄다. 높은 곳에 올라가 안정을 취하면 스트레스까지 해소시켜주는 캣타워는 반려묘

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지만 우리 집 구조에 알맞은 캣타워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몬도미오의 모듈형 캣타워는 필요한 양만큼 모듈을 더하고 빼 다양한 구성과 배치가 가능한 모듈형 DIY 가구다. 고양이의 생물학적, 행동학적 특성을 고려해 놀이, 운동,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별한 공구없이 손쉽게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며, 공간에 따라 다양한 구성과 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캣타워 중간마다 반려묘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해먹, 와이드루프, 스텝 등의 전용 악세서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독창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 디자인에 선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허를 획득하며, SNS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별한날,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케이크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영양을 가득 담은 수제 케이크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건강뿐 아니라 맛과 모양까지 신경 쓴 케이크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반려동물의 기호와 영양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 코코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이펫 파티쉐리 요거트케이크는 설탕, 인공색소, 방부제 등을 첨가하지 않은 저칼로리 수제 간식이다. 주문 확인 후 제작이 들어가는 강아지 발바닥 모양의 수제 케이크는 바나나, 망고, 딸기 등 생과일과 직접 발효한 요거트를 사용해 만들어진다. 유당에 민감하거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심하다면 급여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11번가 ‘애견 안티에이징 대세’ 맞춤형 건강사료 판매

11번가는 세계 최초 ‘처방식 사료’를 개발해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료 브랜드 ‘힐스펫 뉴트리션’의 신제품 ‘어덜트 에이지 디파잉’을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덜트 에이지 디파잉은 11세 이상의 초·소형견의 노화방지를 위한 영양사료이며 오메가-6 지방산, 비타민E 등 균형 잡힌 영양소가 활동성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체중 2.3kg 반려견의 1일 권장 급여량(58g) 기준으로 약 5주분(2kg)이다.

11번가는 이번 신제품 단독판매를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정가 24000원의 상품을 2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노령견에게 생기기 쉬운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관리용품도 다양하게 출시되는 추세다. 올해 들어 ‘노령견전용 기능성사료’의 거래액은 지난해 대비 13% 늘었고 ‘강아지 유모차’는 7%, ‘영양제’ 거래액은 69% 급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중진공, 강원도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맞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강원도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지난 15일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공유 ▲정책자금·기업진단·컨설팅·연수사업 등 패키지 지원 ▲정책발굴 ▲공동사업 수행 및 참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직 이사장(오른쪽)이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칙적 간암 감시검사 환자, 생존기간 더 길다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김휘영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희의료원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B형 또는 C형 간염 환자, 간경변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6개월 마다 초음파 검사 등 이른바 ‘간암 감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다.

최근 간암이 발생한 환자 중 규칙적인 감시 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가 시행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생존 기간이 길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정기적인 감시 검사가 간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김휘영 교수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정훈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간암으로 진단된 1402명을 8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규칙적인 감시 검사를 시행 받은 834명과 불규칙하게 검사를 시행 받은 464명, 아예 시행 받지 않

은 104명의 세 군으로 나눠 생존 기간을 비교한 결과 규칙적인 감시 검사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30% 이상 감소함을 밝혔다.

이는 규칙적인 감시 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들은 64%가 초기 간암 단계에서 진단되고 52%에서 수술 등 근치적 치료를 시행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인용 기자

필련형 전자담배 인기 ‘활활’, 1억6300갑 팔렸다

(출시 11개월 만)

지난해 5월 첫 선…판매량 증가세
보건당국 덩달아 금연 정책 ‘비상’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가열식 필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필립모리스가 2017년 5월 아이코스를 내놓으며 국내 첫 선을 보인 필련형 전자담배가 올해 3월 현재까지 1억6300갑(1갑당 20개비)이 판매됐다.

필련형 전자담배의 월별 판매 현황을 보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필련형 전자담배의 월별 판매량은 국내 선보인 2017년 5월 100만갑이었다. 6월 200만갑, 7월 1000만갑, 8월 1700만갑, 9월 2000만갑, 10월 2100만갑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랐다.



필련형 전자담배 릴

/KT&G

과세당국과 보건당국이 규제에 나서면서 잠시 주춤해졌다. 당시 필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이 확실시되면서 2017년 11월 1100만갑, 12월 1200만갑으로 급증했다.

올해들어 판매량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 2300만갑, 2월 2200만갑, 3월 2400만갑 등으로 2000만갑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같은 필련형 전자담배의 인기로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남성흡연율을 30% 밑으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필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유지되면서 올해 12월말부터 필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세포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등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헬스플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14년 43.1%에 달했던 남성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2015년 39.4%로 떨어졌지만 가격인상의 충격이 가시면서 2016년 40.7%로 조금 반등했다.

/박인용 기자

코웨이 활용도 높은 ‘사계절 의류청정기’

옷 방까지 케어하는 ‘2 in 1’

코웨이는 ‘코웨이 사계절 의류청정기(FA D-01)’ (사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오늘 입은 옷은 물론 사계절 의류를 보관하는 옷 방까지 안팎으로 청정 케어해주는 혁신적인 2in1 제품이다. 이번에 선보인 의류청정기는 의류관리기와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것으로 의류 집중 케어는 총 3단계를 거쳐 옷에 묻은 미세먼지, 생활먼지는 물론 냄새와 주름까지 케어해 새 옷 같은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첫 단계는 코웨이의 핵심 경쟁력인 에어케어 기술을 기반한 3-WAY 파워 블로잉 시스템을 적용해 파워 에어샷으로 옷의 큰 먼지, 에어샷 옷걸이로 내부 옷감의 작은 먼지, 에어 서큘레이션으로 남아 있는 먼지까지 강력하게 흡입한다. 그다음 전기분해 살균 시스템으로 생성된 미세한 나노 미스트가 옷감 구석구석 빠르게 흡수돼 먼지와 냄새 입자를 씻어낸다. 마지막으로 히트 펌프 기술을 적용해 저온에서 빠르게 옷을 건조시켜 옷감 손상이 없게 관리해준다. 공간 케어는 공기청정과 제습기능이



탑재돼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4단계 필터시스템은 극세사망 프리 필터·맞춤형 필터·탈취 필터·해파 필터로 구성되며 상황과 공간, 계절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청정하게 지켜준다.

/김승호 기자 bada@